

(二)

銘文은 上記한 바와 같이 圓筒器 外周를 돌아서 縱書로 十行 二十三字가 다음과 같이 陰刻되어 있다. (字大는 約 1cm) 至大三年 五月 造人 李奇 施主 宋以道 元永 老心 先庵 居善

至大는 元武帝의 年號로서 그 三年은 高麗 忠宣王 二年 庚戌 西紀 一三一〇年에 該當한다. 造人의 工匠을 뜻하는 것이라 하면 李奇라는 人名을 알 수 있고 施主로서 僧俗의 五人을 들고 있다.

以上 内外의 舍利 藏置具는 八角塔形

의 小容器와 細長한 卵形의 塔身이 銀製이나 그 外部分은 모두 青銅의 打製로서 小容器外의 全面을 鍍金하였는데 아직도 그 殘痕이 보이며 青銅製에는 곳곳에 青錆가 끼어있고 銀製는 灰黑色으로 變色되어 있다. 塔形이 高峻하며 특히 塔身이 細長함은 時代에 따르는 特異點이라 할 것이나 이樣式은 그대로 元代의 喇嘛塔形을 模한 것으로서 高麗下代에 造成된 一例임은 明白하다. 이 같은 遺例로서는 美國 Boston 博物館所藏品

이나 金剛山 月出峰 出土品 等^②을 들어야 할 것이나 이들은 그 年代가 十四世紀後半으로 推定되므로 此品보다도 後代의 것이다. 더욱이 此品에는 銘文이 있어 年代를 確定할 수 있는 것은 此種類品의 一規準作을 삼을 수 있을 것이며 同時에 高麗金屬工藝의 確實한 一資料가 될 수 있다. 비록 關係知見을 喪失하였으나 完存하는 内部容器는 그 藏置의 手法과 더불어 注目할 만하다. 이 같은 金屬舍利塔의 樣式은 麗末鮮初부터 流行하는 石造浮屠의 覆鉢形 乃至 鍾形의 그것과 서로 關聯을 갖고 있는 點에서 더욱 그러하다.

註

① 月灘朴鍾和先生께서 解放後에 入手하시어 所藏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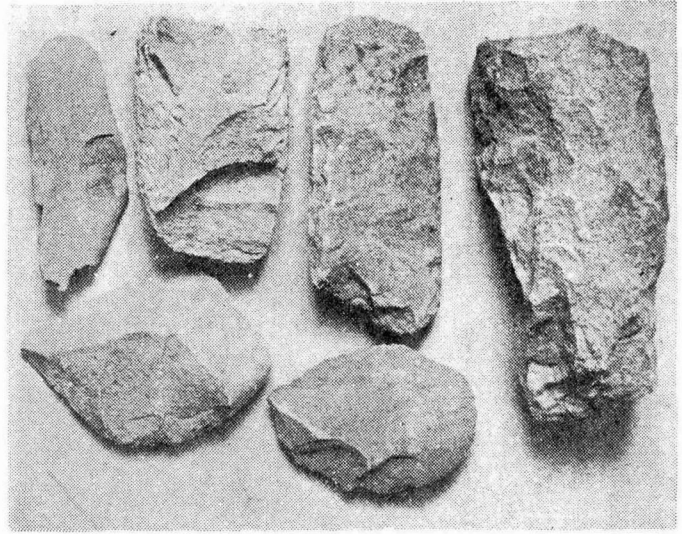
② 本誌前號(三)의 一 通卷十八、一九六二年一月)의 拙稿「高麗金銅舍利塔과 靑瓷壺」參照

(後記) 別號四、五年前의 일이다. 그 當時 筆者는 高麗舍利藏置具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고 있어서 潤松先生께 此種類品에 關하여 問議한 바 있었다. 그때 先生께서는 所藏한 것은 없으나 日帝時 釜山의 日人이 喇嘛塔系의 類品을 入手한 事實을 들은 바 있다고 하시었다. 그런일이 있는지 얼마 아니하여서 先生께서는 새로운 在銘의 一例가 있다고 하시면서 그 形態를 손수 펜으로 그려서 筆者에게 手交하여 주신 바 있었다. 그것은 銘文과 더불어 二重封筒위에 그린 것이다. (圖版) 그 直後 筆者는 先生을 모시고 朴鍾和先生宅을 訪問하여 現品을 보고 驚喜한 바 있었는데 再調와 撮影을 다시 先生께 말씀드린 바도 있었다. 先生께서 棄世하신 直後 이 遺品과 先生의 厚念이 다시 回想되었다. 이 곳에 실은 此品이 先生의 敎示로서 비로서 注目되었고 이제 先生을 追慕하는 因緣을 삼게 됨은 感慨 깊은 바이다. 끝으로 이 貴重品의 調査와 發表를 承諾하여 주신 月灘先生께 感謝 드리는 바이다. (三月 八日 日本東京)

驪州 欣岩里 打製石器遺蹟

金 元 龍

驪州附近에서 櫛文土器가 나온다는 所聞은 오래前부터 國立博物館의



尹武炳 學藝官에게
서 들고 있었는데 지
난 三月一日 開學前
의 最後 休日을 利用
해 現地 調査를 強行
하였다. 이날 國立
博物館에서 尹武炳
李蘭映兩氏와 梨花
女大 崔淑卿氏等 이
一行이 되어 아침 七
時 四〇分 버스로 廣
州, 利川을 거쳐 十
二時 가까이 驪州에
到着, 거기서 十二時
三十分發 長湖院行
버스로 가려 타고 다
시 南下 三橋里에서
下車한것이 一時 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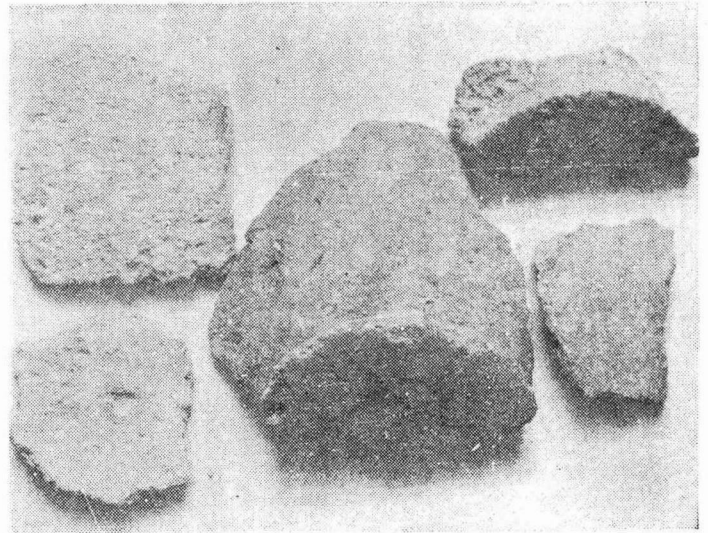
前이었다. 驪州서 三橋里까지가 八籽程度이고 거기서 東쪽으로 南漢江
邊으로 적어 約 二籽가면 驪州郡 占東面 欣岩里로 나온다. (地圖參照)
遺蹟은 欣岩里部落北쪽 江가에 면하고 있는 「유산」이라는 標高一二三米
의 낮은 山위에 있으며 現在 遺址와 같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은 없으
나 元來는 山頂을 中心으로 해서 周圍斜面에 흙집이 모여 있던 楊州 水石里
의 漢江邊遺蹟과 같은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 山은 花崗岩이 風化된 砂
土로 덮힌 圭角 없는 丘山이며 조고만 矮松들이 듨들이 있을 뿐이고 二三
個處에 岩盤이 露出되어 있다. 山은 江을 따라 南北으로 形으로 길고
南北에 各各峯이 있어 鞍形을 이루고 있다. 山의 西麓은 比較的 길게 뻗
고 峯을 사이에 두고 驪州 南쪽의 山峯群과 對하고 있고 東麓은 特別 南쪽
에서 急傾斜되어 江에 臨하고 山 麓은 南쪽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江水가

形成하는 넓은 白砂
地가 對岸에 展開되
고 있다. 그리고 南
北兩峯사이 江에 面
한 屈曲部 傾
斜面에는 옛날에 庵
子가 있었다고 하는
데 至今은 아무 痕跡
도 없다.

石器와 土器片들
은 前記한 바와 같
이 이 南北 兩峯 周
圍斜面에서 地上 採
集되는데 特別 南峯
西南傾斜面에 많다.
(Loc. 1) 그리고 北
峯에서 江쪽으로 傾
斜를 타고 내려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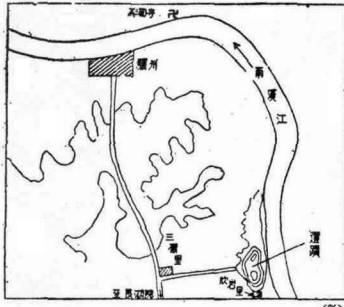
가 最近의 古墳 三基가 있는데 이 古墳 아래 斜面에서 二個의 土器底部가
地中에 박혀있어 그 附近을 더 파보았으나 곧 地山이 나오고 別다른 痕
跡이 없었다. (Loc. 2) 그 附近을 좀더 살살이 찾고 파보면 더 遺物이 나올
것 같지만 서울 가는 馬車時間이 있고 또 午後에 들면서 갑자기 시작할
는 바람이 차서 三時半頃 現地를 떠나 江邊에 가까운 길을 타고 途中 梅
龍里에서 百濟時代의 破壞古墳을 보고 驪州로 걸어나왔다. 우리들은 櫛
文土器와 無文土器가 무수 層位라도 이루고 나타날 것을 內心 期待하고
있었는데 層位는 커녕 櫛文土器는 一片도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遺
蹟을 最初로 報告해 준 當時의 一延世大生은 確實히 粗雜한 沈線文으로
된 有文土器片을 採集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採集한 無文土器片들은 모두 밝은 褐色系統의 胎土에 比較的



굵은 砂粒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間間 灰色系의 色調를 가진 破片도 있다. 器壁의 두께는 〇・七부터 一・〇cm 程度の 여러 가지가 있는데 〇・七、〇・八程度가 主流가 된다. 모두 손으로 빚어 올린 것이며 漢江邊의 다른 櫛文土器遺蹟의 土器에서 보이는 것 같은 뚜렷한 積輪法使用의 痕跡을 볼 수 없다. 器形은 完形이 없어 알 수 없으나 廣口平底器였다고 생각되며 Loc. 2에서 發見된 器底의 底徑은 八cm였고 바다는 周圍가若干 밖으로 꺾여 나온 듯한 平底인 器의 內面은 卵殼內部처럼 매끈한 圓形을 이루고 있다. 口緣部는 外反되지 않고 直立으로 끝났고 間間 口緣直下 一cm未滿의 位置에 突刺孔이 뚫려 있는 것이었다. 이런 突刺孔은 우리나라의 다른 地方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아무르 河地方 石器時代 土器에서도 看取되며 이 兩者를 갑자기 連結시킬 수는 없더라도 興味 있는 事實이다.

何如든 여기 無文土器는 楊州 水石里土器와 비슷하면서 楊州에서처럼 完全한 平底器나 또는 圓底器가 없으며 表面處理도 楊州것같은 壓文도 없고 全體의 楊州 水石里土器보다 古式인 것이 틀림 없다. 이러한 點은 石器에서도 느껴진다.



櫛文土器片은 採集하지 못하였으나 이것은 水石里의 境遇에서도 매우 稀少하였으며 數가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가 採集 못한 것 같다. 水石里와 마찬가지로 石器時代 末期에 이르러서 櫛文土器와 接觸해서 생기는 말하자면 「變形櫛文土器」가 여기 欣岩里에서도 나오는 모양이다.

石器는 玄武岩,

安山岩, 砂岩 등의 礫石을 利用한 打製石器에 種類로는 石斧와 雙器의 들이 있다. 石斧는 큼직한 破裂面을 가진 粗製 全打製器며 磨製法은 全히 使用되고 있지 않다. 이 點은 楊州 水石里土器보다 古式이다. 다만 모두 破品이어서 雙部의 形態나 全形을 밝힐 수 없다. 雙器는 亦是 礫石의 剝片을 利用한 것인데 廣州 漢沙里 櫛文土器遺蹟에서 본 것 같은 精良한 것이 아니고 技法이 未熟한 點이 눈에 띈다. 漢江畔의 一連의 遺蹟과 마찬가지로 그 地域에서 나오는 江邊의 礫石을 利用한 漢江石器文化에 包含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이 山에 올라간 洞里的 一少女가 Loc. 2 下部에서 粘板岩으로 된 磨製石鏃一個를 採集한 것은 特記할 만하다. 이 石鏃은 形이며 매우 精巧한 製作인데 岩寺里의 櫛文土器遺蹟에서 이런 形式의 石鏃이 많이 發見되고 있다.

이 欣岩里遺蹟은 櫛文土器文化와 接觸을 가지고 있던 漢江畔의 石器時代末期 無文土器遺蹟의 하나이며 그 時代는 石器時代末期라고는 하나 楊州 水石里같은 最末期의 遺蹟보다는 實年代에 있어서 좀 올라가는 遺蹟이라고 보여진다. (一九六二, 三, 五日)

大象二年銘 石造菩薩立像

秦弘燮

昌德宮內 倉庫를 調査하다가 本像이 눈에 띈었다. 本像은 오래전부터 李王職에 所藏되었던 것인데 傳來品은 아니고 地方에서 發見된 것이 李王職에 所藏되어 保存된 것으로 發見場所나 發見經緯에 對하여는 一切 알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이 地下出土品인지 傳世品인지도 알 수 없다. 그 뿐 아니라 入手經緯도 全然 알 수 없다고 한다.

石質은 一種의 灰色 蠟石이며 밑에는 方形臺가 있고 그 위에 仰伏蓮이 連接한 楕圓形 蓮臺위에 正面 直立한 像이다. 頭上에는 三面的 高冠